나 대원군(大院君)의 서원(書院)철폐령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서당(書堂)으로 보호(保護)되어 오다가 지금은 철거되고 터만 남아있다. 한때는 대흥학교(大興學校)의 임시교사(校舍)였다.

4) 대흥학교(大興學校)

1907년 황만영이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에 세운 근대 교육기관이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면서 배일사상의 온상이라는 이유로 주진수가 설립한 매화리의 만흥학교와 더불어 폐쇄되었다.

5) 느티나무

돌담마을 하천(河川) 변(邊)에 있는 고목(古木)으로 수령은 300여 년으로 추정된다.

6) 망재(望峴)

사동2리(沙銅二里) 북쪽 동해(東海)에 접(接)한 봉우리이며, 후릿그물어업을 위해 이곳에 올라 고기떼의 이동을 관찰하였다.

7) 봉화대(烽火臺)

망재(望峴) 정상(頂上)에 봉화(烽火)가 있었다고 전한다.

5. 도지고개 전설

해월(海月) 황여일(黃汝一) 선생의 삼취(三娶)가 신행(新行) 올 때 가마가 집 앞 고개를 넘어오는데 둘째 부인이 가마 꼭지를 떼고 오라고 호통치니 신행(新行)에 오던 상객(上客)이 넘어오던 고개를 다시 돌아갔다는 전설이 있어 부르게 되었다 한다.

제10절 삼산리(三山里 : 1·2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정명천(正明川) 북쪽 상류를 끼고 골말(麻山), 잔자리(細柄), 배밭(東蠶山), 안누에산(內蠶山), 밭누에산(外蠶)의 5개 자연부락(自然部落)으로 형성(形成)되어 있다. 마을 동쪽으로는 현

종산(懸鍾山)과 마악산(馬岳山)을 경계로 망양리(望洋里)와 사동리(沙銅里)가 있고, 서쪽은 방율리(芳栗里)와 길게 인접해있으며, 남쪽은 정명리(正明里), 북쪽은 매화면 갈면리와 신흥리가 있다. 삼산1리의 마을회관은 2010년에, 삼산2리의 마을회관은 2006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잠산리(蠶山里)로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5개의 마을을 합하여 삼산리(三山里)라 하였고, 다시 삼산1리, 삼산2리로 분구(分區)되었다.

1) 골말(麻山)

이 마을에서 동남으로 개울을 따라 내려오면 한티와 장발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지(田地)나 산기슭에 대나무가 자생(自生)하고 있고, 옛날 큰 동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 당시 골안에 마을이 있었다 하여 골마라고 부른 것이 변음(變音)되어 골말로 된 것으로 추측된다.

2) 밭누에산(外蠶山)

위쪽에 있는 마을이며 경주 최씨(慶州崔氏)의 집성촌(集姓村)이다.

3) 배밭(東蠶山)

마을 주위의 산(山)이 잠두형(蠶頭形)이라 하여 잠산(蠶山)이라 불렀고, 동쪽 마을이라 하여 배밭 또는 동잠산(東蠶山)이라 불렀다. 안동(安東) 김유순(金儒淳)이 처음 개척했다고 전하며 그 자손(子孫)들이 세거하고 있다.

4) 안누에산(西蠶山)

300여 년 전에 밀양(密陽) 박희제(朴希悌)가 전주(全州)에서 임진란(壬辰亂)을 피하여 심산유곡에 은둔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숲을 치고 개척하여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하며 파평 윤씨(坡平尹氏)가 들어와 함께 살았다 한다. 지금도 그 후손이 살고 있다.

5) 잔자리(細柄)

마을 모양이 길게 형성(形成)되어 긴 자루 모양이라 하여 잔자리라 부르며, 마을 주위의 산(山) 형국이 누에가 잠을 잘 때 머리를 들고 자는 형국(形局)이라 하여 잠자리라 불렀다고 전한다. 고씨(高氏)가 들어와 개척하였으며 지금도 그 자손이 살고 있다.

2. 가구 분포

총 60세대가 거주하며 삼산1리에는 34세대가, 삼산2리는 36세대가 살고 있다. 삼산1리는 평해 황씨(平海黃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전의 이씨(全義李氏), 제주 고씨(濟州高氏) 등이 세거하며, 삼산2리는 안동 김씨(安東金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3. 마을의 특징

1) 고려장터

골마(麻山) 동남쪽 1.5㎞ 거리인 삼산리 산 인접 지역에 고려장터가 있었다고 전해오고 있는데 그곳에 고분군(古墳群)이 총총하게 넓게 형성(形成)되어 있으며, 토기(土器)와 사기(沙器) 조각이 산(山)에 흩어져 있다. 그리고 산 위에는 냇가의 돌을 올려다가 석관(石棺)을 짜고 그 안에 토기(土器)를 넣어 두었던 흔적이 있고, 돌로 봉분을 만들어 그 위에 인력(人力)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넓은 돌을 덮었던 자취가 있다. 청동기 고분군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2) 느티나무

보호수(保護樹)로 지정되어있으며 수령이 360여 년이나 되고, 높이 30m, 흉고 6.2m 크기이다. 사계(沙溪) 이영발(李英發)의 묘(墓) 우측의 백호등(白虎嶝) 끝이 덜 쌓여 있다는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따라 공(公)의 아들 5형제가 나무 한 그루씩 심었다고 전하며 비보숲이다. 성황당으로 모시고 있다. 주변의 나무는 인근 주민들이 무명과 삼베, 길쌈을 할 때 부인들이 허리에 받치는 “떡구레”를 만들기 위해 나무의 껍질을 벗겼으므로 고사(枯死)했다.

3) 영모재(永慕齋)

전의 이씨(全義李氏) 평해 입향조(入鄕祖)인 이명유(李命裕)의)에 후손(後孫)들이 산 밑에 구자형(口字形)의 뜰기와집을 지어 조상(祖上) 숭묘(崇墓)의 재실(齋室)로 오랫동안 보존하여 오다가 철거하고 다시 정면(正面) 4칸(四間), 측면 2칸(二間)의 와가(瓦家)를 건립하여 보존하고 있다.

<그림 9> 간물단지
출처 : 울진문화원

4. 간물단지 전설

골마(麻山) 부락을 개척할 당시 매년 큰 화재(火災)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걱정하던 중 도승(道僧)이 지나가다가 마을 앞산(南山)을 보고 산(山)이 화형(火刑)이므로 산 정상(頂上)에 지리항아리를 묻고 간물[바닷물]을 채워 놓아야 재앙(災殃)이 없을 것이라 하여 주민들이 이를 행하였더니 이후부터는 화재(火災)가 나지 않았다 한다.

제11절 이평1리(梨坪一里)[속명 : 비지]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다천2리(茶川二里)와 접하고 서쪽은 매화면 길곡리와 인접(隣接)하였으며, 남쪽은 황보리와 닿으며 북쪽은 매화면 갈면리와 연접(連接)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592년경에 정민호(鄭珉鎬)라는 선비가 임란(壬亂)을 피하여 마을에 들어와 개척하였다